

광주시, 도시재생 10대 역점시책 제시

‘시민공감·광주다움’ 방점... 탄소제로 녹색건축물 조성

광주역 경제형 혁신지구 조성
상무지구 도심융합 특구 추진
평생주택 500호 1차 건립

광주시에 올해 도시재생 방향을 ‘시민공감’과 ‘광주다움’에 두고 미래지향적 도시공간 조성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31일 ‘명품 디자인 아트도시 광주’ 구현을 위한 올해 도시재생 10대 역점시책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지난 26일 착공한 어울림팩토리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으로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과 혁신지구 조성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KTX 운행 중단으로 도심기능 쇠퇴가 심각한 광주역 일원에 예비창업자 거점공간인 ‘스테이션G’와 소상공인 지원시설인 ‘어울림팩토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기반형 뉴딜사업과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추진, 창업·혁신기업을 집적화하고 쾌적한 정주여건까지



광주광역시청

갖춘 혁신거점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또 상무지구 일원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인프라를 갖춘 광주 도심 융합 특구 추진으로 고밀도 혁신공간 실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시는 이같은 대규모 사업이 수요자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형 2040 광주도시기본계획과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할 예정

이다.

아울러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2045 탄소제로 사회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국공립어린이집, 보건소, 공공의료시설 등 준공 후 10년이 지난 공공건축물 17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국토부 건의를 통해 점차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종관건축가와 공공건축가제도 활성화를 통한 광주다운

명품도시 건축 정책과 아트도시 광주 사업을 추진해 예술성이 가미된 광주다운 도시경관 창출과 함께 도시건축물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기로 했다.

더불어 집값 상승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상층 이하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광주형 평생주택 500호를 1차 건립해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가구 중 미성년 자녀가구를 위해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1인 가구와 청년, 고령층 등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센터 설치 ▲원주민 보호와 공정한 도시정비사업을 위해 온라인 투표시스템 등 시행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전방·일신방직 공장부지의 공익적 개발 등을 10대 시책에 포함시켰다.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도시재생 정책으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가 실현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상주화폐 카드

/상주시

상주시 상주화폐 카드 이벤트

상주시는 설 연휴를 앞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021 설맞이 상주화폐 카드 이벤트’를 진행한다.

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2월 한 달 1인당 상주화폐 카드 충전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할인율도 평소 6%와 달리 상주화폐 사용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10%를 유지하기로 했다.

해당 이벤트에 참여하는 경우 2월 한 달간 최대 100만원까지 카드 충전이 가능하다. 10% 할인율을 적용하면 90만원으로 100만원을 충전해 사용이 가능하다. 단 카드 이벤트에 참여하는 경우 2월 한 달 동안 서류(종이) 상품권은 구입할 수 없다. /상주(경북)=김홍기 기자 gi2136@

부산 대기 중금속 농도, 환경기준치 이하 ‘안전’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12개 중금속 농도 매월 분석
연평균 납 농도 0.0146µg/m³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5개 대기중금속측정망의 미세먼지 중에 포함된 12개 중금속의 농도를 매월 분석한 결과, 환경기준치 이하로 안전하다고 31일 밝혔다.

국내 대기 환경기준이 설정돼 있는 납의 경우 2020년 연평균 농도가 0.0146µg/m³로 대기 환경기준(0.5µg/m³ 이하)의 약 3% 수준이었으며 카드뮴과 망간의 경우도 각각 0.0005µg/m³, 0.0278µg/m³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0.005µg/m³, 0.15µg/m³

이하)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속 성분별로는 철(Fe)·칼슘(Ca)·알루미늄(Al)·마그네슘(Mg) 등 지각 유래 성분이 94.8%로 대부분이었고 기타 미량중금속이 5.2%를 차지했다. 특히 지각 유래 금속의 경우 황사의 영향으로 4월에 최고 농도를 나타냈다.

지점별로는 공업지역인 학장동 측정소의 중금속 평균농도가 상업지역인 연산동이나 주거지역인 덕천동·광안동·부곡동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장동 일대에 밀집해 있는 40여 개의 크롬·니켈 등 영세 도금업체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지역의 크롬과 니켈 농도는 주거나 상업지역보다 8~10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다른 시·도와 비교한 결과에서도 지각 유래 일반금속의 경우에는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공업지역 크롬과 니켈의 평균농도는 서울을 비롯한 국내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5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업지역 크롬과 니켈 농도는 대체로 감소추세이며 발암 위험도 및 독성을 평가한 결과 미국 환경청이 정한 수준보다 훨씬 낮아 주민 건강을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

부산시는 공업지역의 공기 질 개선을 위해 도금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해당 업체들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그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중금속 조사는 2013년부터 주거지역 3곳, 상업지역 1곳, 공업지역 1곳에서 미세먼지(PM-10) 중에 포함된 중금속 12개 항목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부산시는 이를 대기중금속 저감 대책 수립 및 건강 위해도 평가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부산시 문화 교류공간 ‘청년작당소’ 개관

스터디 모임 등 커뮤니티 활동 지원

부산시는 부산 최초의 청년문화 교류공간 ‘청년작당소’를 1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중구 광복동 영화의 거리에 조성된 BNK아트시네마 3층에 위치한 청년작당소는 올해 1월에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2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청년작당소 공간은 ▲클라이맥스(다목적 행사·교류 공간) ▲프롤로그(휴게 및 라운지 공간) ▲리허설룸(세미나 및 소모임 공간) ▲영상도서관(한국영상자료원 등록 영화 열람)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문화예술 행사, 기획전시, 공예·회화 체험, 독립영화 상영 등 지역 청년들의 다채로운 문화예술 향



부산 최초 청년문화 교류공간인 청년작당소가 위치한 BNK아트시네마 건물 /부산시

유와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들로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토요일 12시~21시이며 문화예술 활동뿐 아니라 동아리, 스터디 모임 등 커뮤니티 활동을 원하는 부산시 거주 중인 만 18세~39세 청년은 누구나 무료로 시설 이용과 대관이 가능하다. /부산=허의원 기자

구충곤 “폐특법 시한규제 삭제해야”

(화순군수)

전국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강원랜드 매출일부 폐광기금 배정 요청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가 최근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을 촉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전국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 소속 7개 시·군 시장·군수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문동민 정책관을 만나 폐특법 개정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협의회는 폐광기금의 한계를 주장하며 시·군 지역개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강원랜드 매출액의 15%를 폐광기금으로 배정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

/전남=강성대 기자



구충곤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장이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폐특법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 회장인 구충곤 화순군수는 “폐특법 적용 시한 연장만으로는 지역개발을 위한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다”며 “시한 규정 자체를 삭제해야 폐광지역 주민들을 위한 미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화순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화순군이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이 인기가 있다.

화순군이 임산부 80명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11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는데, 신청자가 몰리면서 1주일 만에 마감됐다.

군은 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80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고, 120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순서대로(선착순 신청)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는 만큼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에서 하면 된다.

/화순(전남)=강성대 기자 ksd1008@

김천시 867개 노선 도로정비

김천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앞두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면적인 도로정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월 29일부터 2주간 867개 노선 1144km에 대해 시행되는 본 사업은 취약한 도로시설물 등을 보수하여 차량통행 및 시민불편 장애요인을 사전 제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로정비반을 긴급정비업체 2개사, 도로철도과 도로보수원 3개 팀으로 편성해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천(경북)=김홍기 기자